광주 디자인·스마트가전 등 내년 483억 투입

산자부 '지역산업 진흥' 예산 투자계획 확정

전남은 고분자 소재·바이오식품 등 주력산업

내년 중 스마트 가전과 복합 금형, 디자인 문화콘텐츠 등 미래 먹거리인 광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에 국비와 지방비 483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지역경제위원회를 열어 내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서 시행할 5개 지역산업 육성 사업에 국비 6423억원과 지방비 2751억원 등 모두 9174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7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환경변화에 선제로 대응하고 신산업·수출 활성화와 연계한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조선 밀집지역 등 위기업종 밀집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우선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 사업에 3059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 사업은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부지나 공간에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해 테스트베드(시험장)로 활용하는 기반조성 분야와 경쟁력 있는 지역 신산업 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분야로 나뉘어 지원된다.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에는 2927억원이 지원된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지역 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중추 산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지역별 주력산업으로는 광주는 디자인·스마트가전,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생체의료용부품 소재, 복합금형, 디자인 문화 콘텐츠 등 5개 사업이며, 전남은 석유화학기반 고분자 소재, 에너지설비, 금속소재·가공, 바이오식품 사업 등이 주력산업 수립 대상 산업이다.

경제협력권 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2641억원이 들어간다.

14개 시·도가 자율협의를 통해 17개 경제협력권 산업을 구성·지원하게 된다.

광주시는 광·전자융합과 에너지부품 산업을 주관하게 되며, 대전과 전북이 각각 참여하게 된다. 또한, 광주는 전북의 친환경자동차 산업에 참여한다.

전남은 바이오활성소재 산업을 주관하며, 전북과 강원도가 참여한다. 전남은 또 경남의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과 울산의 나노융합소재 산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외에도 시군구 지역 연고 전통사업과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에 각각 449억원과 98억원이 주어진다.

해당 예산은 지역 내 풀뿌리 기업을 육성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혁신주체를 연계한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의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광주는 인센티브를 포함한 국비 361억원과 지방비 125억원 등 총 483억원이 지역 미래 먹거리이자, 신산업인 주력산업 등에 투입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전남 발달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연계할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남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1일 오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문건설회관 4층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센터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전남도가 절반씩 모두 4억7000만원을 들여 설치했다.

센터는 발달장애인 전 생애 교육, 직업재활,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등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 서비스를 연계한다.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 보호, 공공후견인 지원 등 업무도 맡는다. 중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설치된 한국 장애인개발원이 수탁 운영하며 개인별 지원, 권익옹호, 운영지원 등 3개 팀으로 꾸려진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크리스마스 선물 주세요" 21일 광주신세계 1층 컬쳐스퀘어(문화광장)에 마련된 산타마을에서 산타할아버지와 어린이들이 환호하고 있다. 산타마을은 오는 25일까지 운영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동영 "황, 세월호 수사 외압" … 황 "그런일 없다"

대정부 질문 황교안과 기싸움

사드·역사교과서 공방도

국회의 21일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외압 의혹 등을 놓고 야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사드배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내년 우리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추가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사드배치를 유예해 상반기에 집중된 경제리스크 중 하나를 헷지(위험 회피)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국가 안보와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나. 지금도 너무 늦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교과서는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데 정말로 문제투성이 교과서"라며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민심과 여론이 어디에 와 있다고 확인했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오는 23일까지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세월호 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도 집중 거론됐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세월호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두 명의 증인이 있다"며 "증인의 증언이 사실로 밝혀지면 황 대행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외압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최순실 파문'과 관련, "제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승객 연 1억5000만명으로

2018년까지 … 자율경영 개선 방안 마련

광주시가 운송원가·교통사고는 줄이고 시민 서비스는 높이는 등 시내버스 자율경영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10년(2006년 12월)을 맞아 2018년에는 시내버스 이용객을 연간 1억50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광주시가 그동안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3148억원에 달하고 그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노선과 운영방식 결정, 운송비용 보전 등 공공 부문은 시가 관리하고 버스 운행, 근로자 채용, 경영관리는 민간 운수업체에서 맡도록 한 제도다.

이에따라 광주시와 10개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최근 운송수입 증대, 운송원가 절감, 부채상환, 시민 서비스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율 경영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시내버스 이용객은 올해 1억4500만명에서 내년 1억4700만명, 2018년 1억5000만명까지 늘리는 등 운송수입 증대 노력을 펴기로 했다. 이용객은 2011년 1억6000만명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는 1억4300만명까지 감소했다.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출퇴근 시간 탄력배차, 부정승차 방지 등도 마련해 추진한다.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 연료절감장치와 표준 연비제 병행 시행, 운수종사자 운전습관 교정교육, 우수직원 인센티브 지급, 철저한 차량정비, 연료비 절감 등에 나선다.

교통사고 예방교육, 교통사고 다발자 집중관리 등으로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차량보험료를 절감하고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업체 부채를 줄일 계획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부, 밥쌀 2만5000t 추가 수입

"시장 방출은 당장 안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올해 쌀 의무 수입량을 채우기 위해 외국산 밥쌀 2만5000t을 추가로 들여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쌀 저율관세 할당물량(TRQ)을 채우기 위해 밥쌀 2만5000t, 가공용 쌀 9만1036t 등 총 11만6000여t에 대해 구매입찰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년간 쌀의 관세화를 유예한 대가로 매년 밥쌀용과 가공용을 합쳐 총 40만8만7000t의 쌀을 저율관세로 수입하도록 국제사회와 합의했다. 현재까지 29만2664t이 수입됐고, 이 중 밥쌀도 2만5000t 포함됐다.

이번에 2만5000t을 추가로 들여오게 되면 밥쌀 수입량은 총 5만t이 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t 줄어드는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입찰을 미뤄왔지만, 사실상의 의무 규정인 TRQ 이행을 연내 완료하기 위해 입찰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산지 쌀 가격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입 밥쌀이 들어오더라도 시장 방출은 당장 하지 않고, 내년 4~5월 이후 방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시의원 4명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정

반재신 시의원 김보현 시의원 문상필 시의원 전진숙 시의원

광주시의회는 소속 시의원 4명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가 주관한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부문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수상자는 공약이행 분야 반재신(북구)의원, 좋은조례 분야 김보현(서구)·문상필(북구)·전진숙(북구) 의원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11월 21~25일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자 공모접수를 통해 공약사항 이행분야와 좋은 조례분야로 나눠 심사 후 수상자를 뽑았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매년 전국 지방의원 3700여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분야의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매니페스토 이행에 충실한 지방의원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내년 1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한민국대표종합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예약/문의 1577-3000
광주지사 1688-1104 서구점 062)385-4999
첨단점 062)974-3050 전주점 063)271-2855
www.lottetour.com에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하세요

창립45주년 TTG 대한민국 최우수여행사상 16년 연속수상! 명예의 전당 입성
TTG(Travel Trade Gazette) : 전세계 관광산업 전문가 및 기자단이 선정하는 관광업계의 노벨상
[2016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
ccm 소비자중심경영(CCM)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

12월 예약 EVENT! ※프로모션 중복 불가
선착순 마감임박!
동반자 30만원 할인! (12/30까지 예약자 한정)
대한항공 비즈니스 좌석 제공! (12/30까지 완납시)

황금연휴 1/27 단1회 무안출발!
중부지방의 특별한 매력 나고야!

롯데관광 나고야 상품 공통특전! (일부 상품에 한함)
❶ 국적기 대한항공 이용
❷ 왕복 차량 수송 포함(광주-유스퀘어 터미널, 전주-월드컵 경기장)
❸ 아침도시락 제공 • 하루 한끼 특식(품격상품)
❹ 일본 최대규모 일루미네이션(빛축제) 관람
❺ 유네스코 문화유산 시라카와코 합장촌 관광
❻ 일본의 3대 성중에 하나인 나고야성 관광

시라카와코 합장촌

일루미네이션

나고야성

★ 설원의 대파노라마 오쿠히다 로프웨이 ★
품격 ALL 포함 오쿠히다 로프웨이+일루미네이션 4일
[성인/소아] 1,649,000원 [유아] 100,000원 선택관광 없음
●오쿠히다(1)/나고야(1) ●1일 1특식(카이세키, 스키야키정식, 장어덮밥) 제공
●[특급] 오쿠히다 료칸, 나고야 힐튼호텔 숙박

정통/일급호텔 오쿠히다 로프웨이+일루미네이션 4일
1,449,000원 +3천엔 선택관광 없음 ●나고야(1)/오쿠히다(1)
●[일급] 나고야 국제 호텔, 오쿠히다 료칸 숙박

★ 일본 3대 게로온천 특급료칸 ★
품격 ALL 포함 특급료칸 수명관+일루미네이션 4일
[성인/소아] 1,649,000원 [유아] 100,000원 선택관광 없음
●게로(1)/기후(1) ●1일 1특식 제공(카이세키, 스키야키정식, 장어덮밥), 온천욕 2회
●[특급] 수명관 료칸, 기후 그랜드호텔, 게로온천 관광 및 숙박

정통/일급호텔 일본 3대 게로온천+일루미네이션 4일
1,449,000원 +3천엔 선택관광 없음 ●게로(1)/나고야(1)
●[일급] 게로 깃센칸호텔, 나고야 국제호텔 숙박, 게로온천 관광 및 숙박

★ 알뜰하게 떠나자 ★
나고야 시내 관광 4일 1,299,000원 +3천엔 선택관광 없음 ●나고야(2)
나고야 자유여행(항공권, 호텔) 4일 750,000원 선택관광 없음 ●나고야(2)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발권일/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임(자세한 사항 및 일정표는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선택경비(관광) 있음/없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안전정보단계] ❶여행유의 / ❷여행자제 / ❸철수권고 / ❹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베너팁]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지의 사전동의를 받음
여행경비 입금은 고객별 전용계좌로만 가능합니다.
●종로구청 : 일반여행업 제467호[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업 영업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획여행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 5억원 가입 ●여행불편처리센터 : 1588-8692 ●여행출발지 : 인천 / 김해 / 대구 / 무안 / 청주공항 ●최소출발 10명(일부상품제외)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교통편 : 항공, 버스, 훼리, 크루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열차표, 입장권, 숙박권 등은 판매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